

남원시의 국문학적 문화자산 활용 일고찰

서정섭(서남대 국문학과)

The study on the future plans for developing literary properties of Namwon City

Seo Jeong-seop (Korean Literature, Seonam University)

1. Introduction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out some programs and devices for developing representative cultural properties of Namwon while examining them into some branches and confirming the present state. This article shows that literary properties have relative importance among many cultural ones of Namwon and they can be maximized only if they are united with art properties. It also shows that we need to make Namwon a classical city in accord with that image of old city at the same time.

2. The cultural properties and contents of Namwon

The cultural properties of Namwon can be classified into six branches- literary, historical, art, geographical, educational, industrial ones. Namwon has abundant properties in literary and art field among them. Three among eight literary properties are highly used and are succeeded traditionally. So are two among nine historical ones. On the other hand, two among three art properties are being used. Especially art is closely connected with literature. Therefore literary and art properties have priority in its development.

3. Some devices of using cultural properties of Namwon

Namwon should have increasing inflow of visitors and competitive power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renewing the system of propertie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Namwon needs to be developed into the direction how people can see, go through, and enjoy literature and art.

First, it needs to determine the courses of literary journey and have public

relations.

Second, it should have many kinds of materials. Namwon should be the original place of Pansori literature and Korean music in connection with research of Chunhyangjeon, Heungbujeon, and Byeongangsoega.

Third, it should have connection with Namwon Education Center and institutes in order to have study program for teachers.

Fourth, it should develop various remembrances and food culture. For example, cups and a set of spoon and chopsticks which are made of wood can be peculiar goods for Namwon. It can develop cooked rice and bibimbap made of mountain herbs.

Fifth, it needs to make Pansori goods for visitors.

Sixth, it should build infrastructure of culture so that it can be attractive place for tourists.

Seventh, it should work on some plans for returners to the farms.

It needs to devise some long period plans. First, it is desirable to make the good use of the properties that are not used. Manboksajeopogi is the love story where a man talks with a maiden ghost and her seven friends. So we can make visitors understand the story by making and undergoing seven tombs. Second, we should construct the backgrounds of Heungbujeon, Byeongangsoe Baekjang park, Kim Samoe Dang, and the moods of Chirisan literature. Third, Namwon is the old city which is one thousand years old, but it has become a kind of modern city. So we have a necessity to change the image and design of the city into classical style under a long period of plans. Fourth, we should consolidate historical properties of Namwon so that we can make it the kind of city which has many things to learn, see, and enjoy.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남원의 문화적 자산을 분야별로 살펴, 이들의 활용도를 확인하고 남원의 대표적 문화자산의 미래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남원의 많은 문화자산 중 국문학적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예술적 자산과 융합하여 활용할 때 남원문화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1000년 고도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고전적, 고풍적 도시 가꾸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어느 고장이든지 자기 고장을 소개할 때는 최고의 미사여구, 최대의 수식어를 활용하여 이야기하곤 한다. 남원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를테면, 통일신라 757년에 남원소경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남원이란 지명을 한번도 바꾼 적이 없는 1000년 역사를 간직한 고도 남원이라고 말한다. 또 남원관찰부를 설치하여 남원, 운봉과 전복의 임실, 장수, 진안, 용담,

무주, 순창, 옥과와 전남의 구례, 곡성, 순천, 광양, 담양, 창평을 관할하여,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었던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문화재와 효열비가 경북 안동 다음으로 많은 충효열의 고장이며, 사랑의 도시, 축제의 고장, 판소리 동편제의 멋과 맛의 고장이고,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는 청정의 고장이라고 말한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옳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말들은 어느 도시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투어에 속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 모든 도시들이 역사와 문화, 청정 환경을 강조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역사와 문화가 없는 도시가 어디 있으며,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청정환경이 아닌 곳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나마 독창적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의 고장도 진주나 고창, 충북 영동(난계 국악축제) 등이 국악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이 독보적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원이 앞세우는 수식어가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투적이고 식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원의 대표 이미지는 그만큼 참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치부될 소지가 있다.

이 글은 남원을 사랑하는 남원 사람, 애향인의 입장에서 남원을 바라보기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지인의 입장에서 남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외지인, 관광객, 탐방객은 관광하고자 하는 도시를 선정할 때, 처음에는 관광하고자 하는 도시에 애정의 눈길을 쏟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선정한 후에, 애정의 손길로 그 도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외지인이 어떤 고장을 방문할 때는 다른 고장에서 볼 수 없는 그 고장만의 독특한 풍광과 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하길 원한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형태에 변화가 일고 있다. 예전에는 국내 관광을 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국외관광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 오히려 국외관광을 선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나 연휴를 이용하여 국외로 나간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국외여행의 자유화 시책과 경제적 여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감상하거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기 위해서 국외여행을 선호한다.

내국인의 경우에 왜 요즘 국외로만 나갈까? 국내여행에 흥미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 가도 그 지방만의 독특한 매력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촌을 근대화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 때부터 농촌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문화의 획일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의 고유 문화를 육성하기보다는 도시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도시로의 이동을 보다 중시하게 되어 각 지역의 매력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나라의 각 도시는 기후나 지형, 문화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국내를 여행할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 탐방하는 도시에 호기심을 가지고 쉽게 빠져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느 지방을 가든 그 지방만의 독특한 매력, 특성, 문화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를 넓게 보면 다 그게 그것이어서 한번 가본 곳을 또다시 찾고 싶은 감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든 관광지, 모든 도시가 획일화되어서 그 지방만의 독창성을 찾을 수 없는, 뻘한 도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 경험을 하고자 국외여행을 선호한다.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에 실시한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의 경우에서 한국인이 해외여행시 참가하는 활동으로는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 ‘도시구경’, ‘쇼핑’, ‘사적지 방문’, ‘유홍/오락/보신’, ‘민속행사/축제 참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006년에 실시한 ‘외래관광객실

태조사' 결과에서는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 동기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거리가 가까워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여행 비용이 저렴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외래관광객이든, 한국인 해외관광객이든 알고 싶은 것은 그 나라의 자연과 문화이다. 예전에는 남원이 문화관광도시로 명성이 높았지만 예전에 비해 요즘은 남원의 문화, 관광, 경제적 현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는 인식이 깊어가고 있다. 남원의 독창성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옛날에는 좋았는데'라는 향수에 젖어 있어서만은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남원 지방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유산, 특성을 잘 살려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가장 관광하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아서 인적자원도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고, 지역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가장 관광하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 남원의 것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 국내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특징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그 장점과 단점을 살피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극대화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남원의 독창성과 의미를 부각해야 한다. 향수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남원의 경쟁력을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국내와 국외에서 주목하는 남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강조하는 것과 차별화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남원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2. 남원의 문화적 자산과 문화콘텐츠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이나 신념 또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언어나 관념, 신앙, 관습, 규범, 제도, 기술, 예술, 의례 등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면서 획득한 모든 것이다. 문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부터 추상화 상징화된 것이다.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그 기능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는 단순한 반사적 반응에서 생활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고도로 진전된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 사회는 고유의 사회문화적 체계를 지니고 있고, 모든 사회문화적 체계는 전체 인간 문화의 구성요소, 즉 기술·제도·관념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개의 사회문화적 체계는 그 구조와 조직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자연자원의 차이에서 유래할 수 있다. 자연자원의 차이에서 유래한 문화자원을 독창성과 연관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Cultural Commodity)을 의미한다. 콘텐츠(contents)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이다. 즉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하고 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말한다. 그런데 요사이의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나 그러한 내용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특히 내용물을 콘텐츠라고 말하게 되었고, 문화와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문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인 문화적 자산을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로 통용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창작 원천인 '문화적 요소'에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창

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기획력은 ‘문화적 요소’에 새로운 ‘혼’을 불어 넣는 원동력이다. 박물관 자료실 한 구석에 쌓여있던 역사적 기록, 이야기, 디자인이 소설로, 영화로, 게임으로,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에듀테인먼트콘텐츠로, 캐릭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기술은 문화와 기술이 만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이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각 국가의 문화산업은 그 국가가 가진 문화산업기술의 기술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제 남원은 어떤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남원을 문화산업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원의 문화자산을 문학적 측면, 역사적 측면, 예술적 측면, 지리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산업적 측면의 7가지로 분류하여 현재의 상황과 활용에서의 문제점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남원의 문화자산을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피고 이들의 활용 정도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문학적 측면- 고전문학 :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전, 만복사저포기, 최척전의 배경지, 조선의 여류시인 김삼의당
현대문학 : 혼불, 지리산문학
- (2) 역사적 측면 - 전란이 끊이지 않는 고장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토성, 산성)
교통산성, 남원성, 만인의충, 관왕묘, 동학관, 한국전쟁, 발굴 유물유적, 용성관, 사직단
- (3) 예술적 측면 - 한국고전음악(판소리-동편제, 거문고) - 춘향가, 흥부가, 가루지기타령, 양덕수의 양금신보
- (4) 지리적 측면 - 지리산(뱀사골, 달궁, 구룡계곡), 섬진강, 청정환경
- (5) 종교적 측면 - 불교 - 실상사, 사찰, 각종 문화제
- (6) 산업적 측면
농업 : 논농사, 밭농사(포도, 딸기, 메론, 감자-비닐하우스재배, 고랭지채소), 화훼
목기 : 바루, 제기, 상, 생활목기
음식 : 추어탕, 산채비빔밥
- (7) 교육적 측면 - 향교, 서원
유학자 배출 현황 - 인물, 과거급제자
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 급제자의 명부인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남원 출신자가 소과에 급제한 사람이 384명으로 전국 10위이다.(한성, 안동, 개성, 원주, 평양, 충주, 상주, 공주, 전주, 남원, 해주, 청주 등등 순)

남원 문화자산의 활용 정도

구분	문화자산 항목	활용 정도			비고
		활용	명맥 유지	미활용	
국문학적 자산	춘향전	○			
	흥부전		○		
	변강쇠가			○	
	만복사저포기			○	
	최척전			○	
	김삼의당			○	

	혼불	○			
	지리산문학			○	
	고전소설 출판지			○	
역사적 자산	교룡산성		○		
	남원성			○	
	만인의총	○			
	황산대첩비지			○	
	관왕묘			○	
	동학농민전쟁			○	
	한국전쟁			○	
	발굴유물적			○	
	용성관			○	
	김주열열사			○	
	오노리 노래탑			○	
	사직단			○	
예술적 자산	판소리(동편제)	○			
	남원농악	○			
	양금신보(거문고)			○	
지리적 자산	지리산(뱀사골, 달궁)	○			
	지리산(구룡계곡)		○		
	섬진강			○	
	청정 환경			○	
종교적 자산	실상사	○			
	사찰			○	
	각종 문화재			○	
산업적 자산	농업(논농사, 밭농사)	○			
	목기	○			
	음식(추어탕)	○			
	도예(도자기)			○	
	한지			○	
	부채			○	
	칼			○	
교육적 자산	향교			○	
	서원			○	

남원의 문화자산 중 풍부한 영역은 국문학적 자산과 예술적 자산 영역이다. 국문학적 자산은 9개 자산 중 활용도가 높거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3개의 자산이다. 역사적 자산은 12개 중 2개이다. 반면 예술적 자산은 3개 중 2개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예술적 자산은 국문학적 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남원의 7개 문화자산 중 1차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것은 국문학적 자산과 예술적 자산이다.

(1) 국문학적 측면

남원의 문화자산 중 가장 풍부한 것이 국문학적 자산이다. 남원의 국문학적 자산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이 남원을 문학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전문학에서는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최고봉인 춘향전과 우애와 욕심꾸러기 이야기의 상징인 흥부전의 배경지, 서민들의 질편한 삶과 애환을 노래한 변강쇠전(가루지기타령)의 배경지¹⁾가 남원이

1) 변강쇠전(가루지기타령)의 작품에 배경지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동구 마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동구 마천은

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저포기가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조위한의 최척전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고전문학의 중요한 작품들에서 남원이 작품의 배경지로 직접 등장하고 있다. 또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전 등의 판소리 문학의 고전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지²⁾가 남원시 광한루원 주변의 천거동과 운봉이었다.

현대문학에서는 민속학의 보고, 우리말의 보고일 뿐만 우리민족의 사상서라고 칭송을 듣는 혼불이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민족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면서 항상 이상향의 동산으로 그려진 지리산이 등반기, 시, 소설의 배경지로 등장한다.

이처럼 많은 문학적 자산을 지금 남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많은 문학적 자산을 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춘향전과 혼불만 활용하고 흥부전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문학적 자산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남원의 대표적 이미지는 춘향전에 근거한 춘향골이다. 춘향전의 배경인 광한루원과 이를 이미지화 하여 체험할 수 있는 춘향테마파크, 관광단지³⁾가 있다. 혼불문학관이 있어서 혼불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 흥부전은 흥부마을로 인월의 성산마을과 아영의 상산마을이 있지만 뚜렷하게 배경지임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흥부제도 이들 장소에서 열리지 않고 남원시내에서 열리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지인 만복사는 횡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다. 변강쇠전과 최척전, 지리산의 문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남원시 산내면을 통과하여 가야 한다. 지금은 행정구획이 경남 함양군 마천면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의 생활권역(통혼권, 5일장)에서는 산내와 마천이 동일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산내와 마천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권역으로 인식하는 것도 무방하다.

2) 이태영

그나마 문학적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현황은 어떠한가. 춘향전도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관광단지인데 이들의 연계성이 확고하지 못해 광한루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춘향테마파크와 관광단지로 유입되지 않는다. 문제는 관광단지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뚜렷한, 특화된 관광거리가 없다는 점이다. 관광단지가 놀이공원도 아니고 국악공연장도 아니고, 음식점, 숙박단지도 아니고, 이들의 성격을 조금씩조금씩 나누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특성이 없다. 따라서 광한루원에서 굳이 관광단지까지 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결과 그나마도 볼거리가 있는 춘향테마파크가 주목받지 못해 광한루원을 찾는 많은 사람이 요천 건너까지 이동하지 않고 추어탕 한 그릇 먹는 것으로 남원관광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혼불문학관도 예외는 아니다. 혼불마을을 둘러보고, 종가와 강실이네 집, 서도역, 거명굴을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혼불문학관을 보고서 떠나기에 급급하다.

(2) 역사적 측면

남원은 지리적인 여건상 군사적 요충지임으로 크고 작은 전투,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으로 싸움이 잦아 산성이 많은데 남원성과 교통산성이 대표적이다. 또 고려말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친 황산대첩비와 피바위, 정유재란 때의 만인의총, 근대에 들어서는 동학농민전쟁, 현대에는 1960년 4·19 혁명의 도화선 김주열 열사 등이 아픈 상처이며 호국의 몸부림이었다. 중국 관우장군을 모시는 관왕묘와 한국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여러 역사적 자산 중 정유재란과 관련이 있는 만인의총(萬人義塚)이 있다. 만인의총 입구에는 파란 잔디 구장을 연상시키는 넓은 잔디밭 위에 오느리³⁾ 노래탑이 서 있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을 지키기 위한 남원성 싸움이 1597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치열하였다. 남원은 전라도의 관문으로 왜군이 북상하는데 꼭 확보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래서 조선이나 왜군 모두 남원을 확보, 점령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패배한 것은 전라도 지방을 점령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하여, 정유재침시에는 전라도 지방을 점령한 후 한양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선조 30년 7월말 이 작전에 따라 왜군 11만명이 좌우군으로 나뉘어 우군은 경남 거창군의 황석산성을, 좌군은 남원을 공격하였다. 남원은 전라와 충청을 지키는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로, 조정에서도 이곳의 방어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이곳에는 전라병사 이복남, 광양현감 이춘원, 조방장 김경노의 군사와 중국 명나라의 부총병 양원(楊元)의 3천 군사가 지키고 있었다. 단기간에 싸움을 마무리하기 위해 왜적은 전 병력을 투입하여 돌격을 감행했다. 왜군에 맞서 침식도 잇은 채 민관군이 혼연일체로 싸웠지만 중과부적으로 남원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전라병사 이복남이 이끈 1,000여 명의 병사와 구원병으로 온 명나라 3,000여 명의 병사 그리고 성안에 있던 주민 6,000여 명 등 총 10,000여 명이 죽고 남원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 순절한 시신을 한곳에 모아 합장하였다.

만인의총은 초중고생들이 체험학습, 수학여행의 일환으로 참배한다. 그 외 교통산성, 남원성, 관왕묘, 여러 곳에 산재된 토성과 산성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활용도 하지 않고 있다.

3) 오느리 노래탑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들이 오늘날도 부르고 있는 노래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남원문화원에서 건립하였다. 노래탑을 건립하기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을 방문하여 현지조사한 최승범(1994) 조선도공을 생각한다 참조. 이 노래는 양덕수의 『양금신보』에 채록되어 있다.

(3) 예술적 측면

남원이 고전문학의 산실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춘향가, 흥부가, 가루지기타령이 불리는 판소리 동편제의 본 고장이다. 이를 알리는 행사와 탐방 명소가 있다. 춘향제 때 춘향국악대전의 명창 선발대회가 있고, 관광단지 내에 국립민속국악원이 있다. 최근에 운봉에 국악의 성지가 개관을 하였다.

춘향국악대전은 춘향제 때 한정적으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행사이다. 반면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연중 각종 공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한루원의 관광객이 관광단지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또 광한루원에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각종 공연을 관람하는 행사로 연계가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에 개관한 국악의 성지는 그 성과를 아직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리적으로 남원 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행사를 하여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결국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국악의 고장임을 실감할 수 있는,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많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젊은이들은 국악, 판소리를 어렵다고 생각하여 멀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선입견을 깨뜨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접근장치가 없다.

(4) 지리적 측면

지리적 측면에서 남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갖고 있다. 전북, 전남, 경남 3도에 걸친 지리산의 탐방객은 전남북의 경우 구례를 통하여, 경남의 경우산청을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원이 지리산의 거점 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을 경유하여 지리산을 등반하거나 탐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남원은 지리산 탐방객의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남원을 경유해서 지리산에 접근하는 것은 뱀사골이나 정령치, 육모정을 탐방하는 코스인데 이 경우 일반적인 종주코스는 아니다. 그럼으로 지리산 중 남원지역에 속하는 곳들의 특징을 부각하여 탐방객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섬진강의 경우는 섬진강의 지류인 요천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지만 활용성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류인 순자강이 남원시 대강면으로 흐르고 있지만 이 곳 또한 활용되지 않고 있다.

(5) 교육적 측면

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 급제자의 명부인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남원 출신자 소과 급제는 384명으로 전국 10위이었다. 서울인 한성, 안동, 개성, 원주, 평양, 충주, 상주, 공주, 전주, 남원, 해주, 청주 등등 순이었다.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이었던 남원향교, 운봉향교, 창주서원, 유천서원, 용장서원, 풍계서원, 호암서원 등의 향교와 많은 서원에서 인물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남원이 이에 걸맞은 교육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소도시로 전락한 지금, 예전과 동등한 교육적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능을 활발히 담당했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한 탐방코스 개발이 필요한데 전무합니다.

(6) 종교적 측면

남원은 전통적으로 불교의 고장이었다. 불교에서 남원의 대표적 사찰이 실상사이고 이곳을 찾는 신자들도 많다. 그러나 실상사는 일반적인 사찰의 입지조건과 다르게 평지형 사찰이다. 실상사가 구산선문의 최초가람이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규모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풍광면에서는 다른 사찰에 비해 뒤떨어진다. 앞으로 주변에 조경을 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찰이 되었으면 한다.

실상사를 기반으로 한 지리산생명연대나 귀농학교가 있고, 귀농정착자가 많다. 전국 귀농자 대회를 열어 귀농자들이 남원의 곳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7) 산업적 측면

남원은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지만 실상은 농토가 많고, 농업인이 많은 농업지역이다. 최근에는 유기농을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밭농사에서는 포도, 메론, 감자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다. 남원은 지리산의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를 활발하게 재배하고 있으며 운봉에서는 화훼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

남원의 특산품은 목기로 바루와 제기, 상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목기는 사양 산업이다. 목기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사회 현대인의 생활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일반화시켜야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찻잔세트가 있으나 5만원, 10만씩에 판매가 되고 있으므로 손쉽게 구입하기 어렵다. 찻잔세트를 저렴한 가격대의 보급형으로 개발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남원의 대표적 음식은 추어탕이다. 그러나 추어탕을 꺼리는 층도 있다. 남원은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활용한 산채비빔밥을 특화하여 참살이음식으로 특화하면, 추어탕과 함께 남원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도 추어탕은 꺼릴 수 있으나 산채비빔밥은 즐겨 찾는 식품이 될 것이다.

논농사와 밭농사를 특화하여 체험농장, 농촌테마마을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국문학적 자산 활용의 문학예술특구 조성

남원의 문화자산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을 운용하고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만 한다.

남원의 문화자산은 7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많은 자산이 산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명도가 가장 높은 것은 춘향이, 춘향골이라 널리 알려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전, 흥부전이 있는 문학적 자산인 국문학적 자산이다. 춘향전, 흥부전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유치원생까지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춘향전, 흥부전은 판소리 춘향가, 흥부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남원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원은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가, 최척전, 만복사저포기, 김삼의당, 혼불, 지리산문학, 고전소설 출판지로 대표되는 국문학적 자산과 판소리, 거문고로 대표되는 예술적 자산을 잘 활용한 문학예술특구가 되어 집중 조명되어야 한다. 문학예술특구는 단순히 남원의 국문학 자산만 소개하는 것을 뛰어넘어 한국문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특구가 되어야 하며, 현대문학의 창작산실로 승화되어야 하고, 판소리를 위시한 가야금, 도자기 등을 음미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의미가 있다.

아쉽게도 남원은 많은 문화자산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특화하지 못해 문화관광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다. 우선 이들의 문화자산 중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문화자산이 풍부한 것은 국문학적 자산과 예술적 자산이다. 남원은 문학적, 예술적 자산을 특화하여 문학예술도시 특구를 지정하여 21세기 남원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들 자산

을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남원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분야(문학적 자산, 역사적 자산, 예술적 자산, 지리적 자산, 교육적 자산, 종교적 자산, 산업적 자산)의 자산 중 그래도 대중적 이미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문학적 자산이다. 물론 만인의총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버스로 이동하여 잠깐 관람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분석해볼 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래도 춘향전과 혼불을 느끼기 위해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문화자산을 활용할 때는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특수층 겨냥 마케팅과 대중적 마케팅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특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활용 자산의 운용 시스템과 인프라를 새롭게 하여 관광객의 유입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문학과 예술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컨셉이 모아져야 한다.

첫째, 문학탐방 코스의 정립과 홍보이다. 서울, 전주권에서 접근할 때 혼불문학관을 거쳐, 춘향전의 배경지 오리정(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만복사저포기, 흥부전의 배경지(인월, 아영), 변강쇠가(산내 백장장승공원), 달궁으로 이어지는 코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각종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가의 활용은 예술적 자산인 판소리와 연계하여 남원이 판소리 문학과 한국음악 연구, 향유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전시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복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춘향전은 고전소설과 판소리, 영화⁴⁾, 창극, 오페라, 발레⁵⁾, 신소설, TV드라마(쾌걸 춘향)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창조되었다. 고전소설의 완판본, 경판본 등 각 판본과 이본을 수집하고, 판소리는 동편제, 서편제 등 각 유파와 각 명창의 창본과 LP판, CD, 녹음 테이프를 확보, 보관해야 한다. 영화 필름, 오페라 자료, 동화 춘향전, 동화 흥부전 등의 자료를 확보 보관해야 한다.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한두 사람이 보고 듣더라도 상영하는 상영관이 있어야 한다.

셋째, 남원교육청, 유관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하계, 동계방학 중에 문학캠프를 열어 전국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판소리와 국악기 캠프, 남원농악 캠프, 도자기와 생활 목기 캠프를 실시한다. 특별히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

4) 그동안 제작되었던 영화 춘향전은 20여 편에 이른다. 1923년에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춘향전이 처음으로 영화로 만들어진다. 그후 1935년에 경성촬영소의 이명우 감독이 제작한 춘향전이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최초의 발성영화이었다. 일년 후인 1936년에는 ‘그 후의 이도령’이란 제목으로 영남영화사의 이규환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였다. 1955년에는 동명영화사의 김재중 감독이 춘향전을, 1957년에는 김향 감독이 대춘향전을, 1958년에는 서울칼라라보의 이만수 감독이 춘향전을, 1960년에는 우주영화사의 이경춘 감독이 탈선 춘향전을, 1961년에는 흥성기프로덕션의 흥성기 감독이 춘향전을, 신필름의 신상욱 감독이 성춘향을 동시에 개봉하였다. 1963년에는 동성영화사의 이동훈 감독이 한양에서 온 성춘향을, 1968년에는 세기상사의 김수용 감독이 춘향을, 1971년에는 태창영화의 이성구 감독이 춘향전을, 1972년에는 합동영화의 이형표 감독이 방자와 향단이을, 1976년에는 우성사의 박태원 감독이 성춘향전을, 1987년에는 화풍공업의 한상훈 감독이 춘향전을, 1999년에는 투니신 서울의 ANDY KIM 감독이 성춘향편을, 2000년에는 태흥영화사의 임권택 감독이 춘향편을 제작하였다.

5) 발레 춘향가가 서양에 소개된 것은 20세기 초반 중요한 안무가였던 미하일 포킨이 1936년에 만든 <사랑의 시련>인데, 주인공 이름이 ‘충양’으로 돼 있는 등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1930년 독일 카를스루에 무대에서 <춘향전>과 훨씬 흡사한 발레 공연된 기록도 있다(울산대 최정호 석좌교수).

여 활성화하면 현재의 문화자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넷째, 기념품과 음식문화이다. 부담없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생활목기 컵(물잔)과 수저세트를 특화해야 한다. 가능하면 나무로 춘향이와 이도령, 흥부, 놀부, 강쇠와 웅녀, 판소리 명창, 장구와 북 등의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구입하여 자신들이 색칠하는 체험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남원의 대표적인 음식은 추어탕인데 사실 추어탕은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에게 권하기는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리산 산나물 산채백반이나 산채비빔밥을 또다른 남원의 대표음식 브랜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판소리의 관광상품화이다. 판소리의 상설공연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여건이 가능하지 않다면 국악원이나 시립국악단의 연습시간과 장면을 공개하여 언제든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판소리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열린 마음의 수용이 필요한 것인데, 판소리의 대중화와 상품화라는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1-2명이 하는 약식 판소리 공연을 하고, 한 대목씩 따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격의없이 판소리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남원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시내의 음식점이나 술집의 희망을 받아 한 달에 일정한 회비(아주 저렴하게, 상징적으로만)를 납부하면 그 상점에 가서 공연을 하고 손님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회비로만 운영이 어려울 것이므로 시에서 보조하여 남원의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여섯째, 현재의 문화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박물관, 국악의 성지, 만인의총 등에서는 각 분야에 적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살거리를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이 항상 운영되어야 한다. 관광객이 건물만 둘러보고 가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곳에서 오감을 만족시켜 기념품, 물건을 저절로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곱째, 귀농인 유입대책이다. 도시인들이 귀농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국귀농인 본부나 귀농학교 등과 연계하여 남원에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귀농인 축제를 마련하여 현 귀농인뿐만 아니라 잠재 귀농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남원의 여러 읍면에 귀농인이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발전방안도 필요하다. 첫째 국문학적 자산 중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원이 춘향골이라 하여 왔지만 이도령이 한양으로 갈 때 춘향이와 이별하던 오리정, 이도령고개, 버선밭 등은 전혀 가꾸지 않고 있다. 춘향전 관련 배경지를 테마파크화하여 광한루원⁶⁾, 춘향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업무를 보았고 생일잔치를 했던 동헌도 복원해야 한다. 시내 곳곳에 춘향과 이도령, 암행어사의 마패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외형적으로 춘향전의 고장임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만복사저포기의 경우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예이다. 만복사를 복원하면 좋을 것이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만복사저포기 문학공원이 필요하다. 만복사저포기는 총각이 무덤 속에서 처녀 귀신과 그녀의 친구 7명과 함께 사랑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무덤 7개를 만들어 관광객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6) 광한루원은 춘향전과의 관련성만 강조되었는데,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황희 정승과 도선사상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광한루를 처음 지었다고 전해지는 황희 정승에 대한 관심이 없다. 황희 정승 동상을 세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황희 정승의 사상, 청백리 정신 이어가기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삼신사상을 반영한 봉래섬, 방장섬, 영주섬과 광한루 정문의 편액 광한청허부를 부각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도선사상이 광한루원에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도선사상은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를 포함한 금오신화의 중요 사상이기도 하다.

만복사저포기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무덤 속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습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지상에 건물을 세우고 지붕을 봉분으로 하여 무덤을 만들어도 무방하다. 7개의 무덤은 만복사저포기관, 김시습과 금오신화관, 사랑이야기 체험관, 한국고전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등등을 조성하면 문학예술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흥부전의 배경지와 변강쇠가 백장공원, 김삼의당, 지리산문학의 문학적 분위기 조성이다. 지금은 이들 배경지에 대한 볼거리가 거의 없는데 문학적 의미와 볼거리, 상징화와 문학공원을 특화한다면 문학예술도시 특구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문학관에서 한국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학인들이 정착하거나 체류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의 조성이다. 문학관이나 외형적인 조형물을 통해서 문학을 느끼는 것은 박제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실제로 살아있는 문학이 있어야 한다. 문학인이 즐겨 찾아 문학을 이야기하고, 남원과 지리산에서 문학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바란다면 남원과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창작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박제된 국문학의 도시가 아닌 실제로 문학을 향유하고 문학을 창작하며, 문학을 이야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들 때 진정한 문학도시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남원이 천년 역사의 고도이지만 도시 이미지는 현대적이어서, 서로 걸맞지 않다. 용성관의 복원은 학교 이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동헌과 서문을 복원하여 역사적, 고전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시설계와 도시이미지를 고전적,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역사적 자산을 하나씩 정비하여 배울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남원이 되어야 한다.

4. 맺음말

남원에는 많은 문화자산이 있지만 이것을 잘 연결시키지 못해 남원이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문화자산을 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렇다면 어떤 한 분야를 특화하여 21세기의 남원을 이끌어갈 역동적 산업화 동력으로 창출해야 한다. 남원을 국내의 특화단지로 부상시키고, 세계적으로도 상품화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와 살거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남원으로 성장시킬 특화거리를 선정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문화자산을 남원은 왜 잘 활용하지 못했을까? 이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집중력 부족이다. 남원이 춘향이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춘향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춘향이가지고 안 되니까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는가?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춘향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급변하는 현대인들의 취향과 구미에 맞도록 춘향이를 변형시키고 특화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남원은 광한루원과 예전의 춘향이만 고집하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식상해 한 것이고, 춘향이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원은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여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형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춘향이와 국문학적 자산에 집중하여 특화하지 않고 막연하게 광한루원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좀더 철저히 춘향이와 흥부, 변강쇠 등 국문학적 자산에 집중하지 못한 집중력의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다.

두 번째는 하나의 아이템을 몇 년간이고 끝까지 추진하여 완성시키고자 하는 치열함이 부족

하였다. 이 문제는 집중력과도 관련된다. 하나의 아이টে에 집중하여 적어도 그것을 끝까지 완성시키고 성공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그동안 한 것도 광범위한 것이 아닌 춘향 테마파크 조성 정도 이었는데, 1차적 사업인 건물 신축, 외형적 겉보기 완성 등에만 머문 경우가 많았다. 풍부한 국문학적 자산을 집중 활용하지 못했고, 국문학적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마케팅을 끝까지 추진하지 않았다. 춘향전의 배경지인 오리정이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거나 흥부전의 배경지 등 여러 작품의 배경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집중력 부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치열함이 부족했음을 잘 알 수 있다.

많은 문화적 자산이 있지만 그것을 특성화시키고 산업화시키려면 중국적으로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가미되어야 한다. 그런데 풍부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지 못했고, 또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층을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력을 갖지 못했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나의 아이টে를 몇 년간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창의성과 도전성의 결여이다. 남원은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열심이지 못한 느낌이 있다. 다른 지역, 다른 도시의 리모델링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টে를 구상하여 일을 추진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 실패하면 그 사업을 접고 바로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는, 결국 끝까지 추진하는 치열함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창안하지 않고 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들만 찾아서 기웃거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원을 문학예술특구로 지정하여 문학과 예술의 고장으로 만든다고 하여, 과연 하루 아침에 남원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까? 아마 단시일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만족하고 호기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집중력과 치열함, 창의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국문학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남원이다. 남원의 국문학적 자산은 한시, 고전소설, 한문소설, 현대소설, 현대시, 판소리, 창극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다. 남원의 많은 문화자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남원을 문학예술도시 특구로 지정하면 남원이 활기 넘치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남원문화원, 2001, 남원문화유산답사, 그린출판사:남원

서정섭, 2002, 남원 지리산 이야기, 북스힐:서울

이정덕 외, 2000, 전북의 축제, 신아출판사:전주

전라북도의회, 2006, 전라북도 문화예술공간지원조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도의회 정책연구실

최승범, 1994, 조선도공을 생각한다, 신영출판사:서울